

절박한 새정치, 오늘 혁신비대위 구성

강도 높은 당 쇄신작업 주도...내년 1~3월 전당대회 가다

비대위원장엔 “위기 돌파 책임자” 박영선 추대 의견 많아

7·30 재·보궐선거 참패의 후폭풍에 휩싸인 새정치민주연합이 4일 의원총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구성안을 의결할 예정이어서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비대위가 차기 지도부 선출 등을 맡는데 그치는 한시적 관리형이 아닌 당의 재건을 위한 강도 높은 쇄신 작업을 주도할 ‘혁신비대위’로 꾸린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김한길·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사퇴에 따라 대표 직무대행을 맡은 박영선 원내대표는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당 상

임고문단, 중진·재선·초선 등 선수별 의원모임, 시·도당위원장과 각각 단위별 비상회의를 열어 혁신비대위 구성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의 전체적인 의견은 정치국회 일정 등으로 조기 전당대회 개최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에서 당내 혁신을 차기 지도부가 구성될 때까지 미루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앞으로 20개월 동안 큰 선거가 없다는 점에서 당을 개혁할 수 있는 시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진단도 내려진 것

으로 전해졌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상임고문단 비상회의 등 각종 당내 회의에서 비대위가 당내 혁신을 이끌어 가는 방법 밖에 없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혁신과 내용 및 과제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엇갈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는 내년 1~3월 정기 전대 형식으로 치르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당의 재건과 혁신의 중책을 짊어질 비대위원장은 박영선 원내대표를 추대하자는 의견이 다수를 이룬다. 지도부 총사퇴로 유일하게 남은 선출직 당직자인데다 위기를 정면 돌파할 책임자라는 평가에서다.

세월호특별법 제정과 세월호 국정조사 등 원내 현안을 책임져야 할 원내대표로서

정국회와 비대위 운영을 동시에 책임지기가 벅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당내 다수가 박 대표의 비대위원장 겸임을 지지하는 형세다. 혁신안을 마련하기 위해 비대위원에는 외부 인사들을 다수 참여시키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계파별로 위원을 고루 안배해야 한다는 주장과 계파를 초월해 능력 있는 인사를 뽑아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차기 당권을 염두에 둔 인사보다는 사실없이 개혁을 밀어붙일 수 있는 사람이 비대위에 참여해야 한다는 데는 견해가 일치하는 분위기다.

새정치연합은 4일 의원총회에서 큰 틀의 비대위 구성방안을 확정짓고 구체적인 개혁 방향과 과제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평가라운지

박지원 “손학규 고문 휴식 끝내고 다시 돌아와야”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손학규 상임고문이 정계은퇴를 선언한 것과 관련, “손학규는 휴식과 정리가 필요하고, 그리고 돌아와야 한다”고 호소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게재한 글을 통해 “손학규는 아직도 새정치연합의 수도권을 대표하는 대권 후보다. 충청권 안희정, 호남권 정세균·정동영, 영남권 문재인·박원순·안철수·박영선·김두관 ‘9룡’이 경쟁하며 국민의 검증과 당원 평가를 받으면 후보가 탄생하고 정권교체가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재보선에서 제가 맨 먼저 수원에 손학규 차출론을 제기했지만, 당내 역학관계 상 모양새를 갖추지 못하고 어느 날 아침 팔달로 내몰렸다. 그는 제게 전화로 ‘당을 위해 가겠다’고 했고, 저

는 화를 냈다”고 소개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글에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손학규 고문의 인연을 상기시켰다.

그는 “서강대 손 교수는 3김(김대중·김영삼·김종필) 중 유일하게 DJ만 초청, 강연해 했다. 그러나 최형우 장관의 소개로 YS에게 정계 입문(배) 보사부장관, 경기지사로 성공한 업적을 평가받았다”며 “새누리당에 있으면서도 그는 매년 DJ를 찾아 뵈고 햇볕정책을 지지했다. 그가 새누리당을 탈당하자 그를 민주당에 입당하도록 DJ는 측근 지원했고, 대통령후보 경선 때도 그를 지지했다”고 설명했다.

/박지경기자jkipark@kwangju.co.kr



박주선 “투쟁야당 미래 없어...체질개선 필요하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은 3일 7·30 재보선 패배와 관련, “투쟁하는 야당으로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며 생산적 야당, 대안야당으로서 과감한 체질개선과 구조개혁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도부가 사퇴했지만 선거 패배의 책임소재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성공한 국민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근본원인을 진단하고 성찰해 당 혁신의 방향을 잡는 것”이라며 “현재 당의 체질과 구조로는 그 누가 지도부가 되더라도 결과는 실패의 연속이 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이 선거에 참패하는 고질병은 지난 2008년부터 강경 일변도로 구사해 온 ‘투쟁하는 야당론’에 있다”며 “강경투쟁을 하면 할수록 선거에서 전연패하는 역설적 정치결과에 대해 진지하고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박 의원은 “야당의 체질개선과 혁신은 ‘투쟁하는 야당론’의 폐기와 ‘생산적 야당’로의 전환부터 출발해야 한다”며 “야당은 비판하고 견제만 하는 정치집단이 아니라 나라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결정하는 권리와 비전, 책임을 가진 대한민국 절반의 정치세력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비상대책위원회가 단순한 임시권한단체가 아니라 당의 지도체제, 공천방식, 야권연대 및 재편, 계파청산, 의사결정구조 등 원칙과 기준을 세우는 ‘당 혁신위원회’로 출범할 것을 제안했다.

/박지경기자jkipark@kwangju.co.kr



“의견을 모아 봅시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왼쪽부터)와 권선택 대전시장, 안희정 충남지사가 3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비대위 구성 비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보선 쓰나미’...與는 ‘강경모드’ 野는 ‘동력상실’

세월호 청문회·특별법 표류 위기

7·30 재보선에서 새누리당이 압승을 거둔 이후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와 특별법 제정이 표류 위기를 맞고 있다. 새누리당 내에 야당에 휘둘러서는 안 된다는 강경론이 힘을 받고 있는 반면 거센 후폭풍에 휘말린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선 여당을 압박할 동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협상 결렬로 8월 초 청문회 개최가 사실

상 무산된 상황에서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여야 간사는 3일 청문회 증인 문제를 놓고 추가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지난 1일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호성 제1부속실 비서관, 유정복 인천시장(전 안전행정부 장관)의 청문회 출석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협상이 불발로 끝난 후 사실상 협상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애초 4~5, 7~8일로 예정됐던 청문회가 물건너 간 것은 물론이고 현재로서는 이달 중 개최 자체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야는 일단 협상은 계속한다는 방침이지만, 새누리당은 야당의 요구에 대해 미동도 보이지 않고 있다.

여야의 세월호특별법 협상은 재보선을 기점으로 아예 중단됐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각 당 정

책위장과 특별법 테스크포스 간사로 구성된 ‘2+2’ 회동을 통해 진상조사위원회에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는 문제 등 핵심 쟁점을 제외하곤 대부분 항목에서 의견 접근을 이뤘다.

그러나 특검 추천권을 놓고 새정치연합에선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고 타협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특검 추천권을 거론하는 자체가 기존 사법 체계에 위배된다고 오히려 한 발짝 빼고 있어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계다가 협상의 한 축인 새누리당에선 재보선을 전후로 상황이 바뀔 만큼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박지경기자 jkipark@kwangju.co.kr

진보정당들 독자생존이나 통합이나

재보선 참패후 활로찾기 고심

6·4 지방선거에 이어 7·30 재·보궐선거에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진보정당들이 활로 찾기에 고심하고 있다.

우선 진보정당이 독자생존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으며 야권 통합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당장 노회찬 전 대표가 서울 동작을에 출마했으나 낙선한 정의당의 경우 통합론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 ‘스타 정치인’과 ‘야권연대’라는 두 가지 카드를 다 쓰고 총력전을 벌였는데도 당선자를 내

지 못하자 당의 자생력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독자 노선을 포기할 상황이 아니며 차별화 된 진보정당의 모습으로 미래를 열어야 한다는 주장도 강하다.

어떻게 마련한 진보정당의 토양인데 선거에서 두 번 패했다고 버릴 수 없다는 감정적 주장도 이어지고 있다.

이밖에 노동당, 녹색당 등 원내 기반이 전혀 없는 진보정당들도 고민이 깊어 가지런 별다른 활로가 보이지 않는다는 관측이다. /임동욱기자 tuim@

신협을 알아야 재테크의 완성!

1인당 예금비과세 3,000만원 (생계형 / 세금우대 별도)

대출한도 25억원

한도는 높게 ↑ 금리는 낮게 ↓

광주원광신협

대표전화 1599-4474

공동본점 | 금호지점 | 품암지점

정통 주역사주

주역은 우주만물의 변화과정을 설명한 유교의 경전이다. 인간도 예외 일수는 없다.

본인의 운명 판단 및 미래에 대비하는 주역의 종합본

저자 서상덕 (전 교육연구원) 석사

- 필사본
- 정가 : 32,000원 (택배비 포함)
- 구입문의: 010-4211-2146 (정확한 우편번호, 주소, 성명 전화번호 명시)
- 불법 복제를 금함

2014 漢字·漢文指導師資格

※ 教育部 科學技術部 國家公認 研修生募集

구분	광주여자대학교(19기)	광주교육대학교(10기)
개강일시	-금요일 오전반: 2014. 9. 5(금) 09:10(특급반) -금요일 오후반: 2014. 9. 5(금) 14:10(초급반) -토요일 오전반: 2014. 9. 6(토) 09:10(중급반)	-월요일 오후반: 2014. 9. 1(월) 14:10(초급반) -월 목 어간반: 2014. 9. 1(월) 19:00(중급반) -목요일 오전반: 2014. 9. 4(목) 09:10(고급반) -토요일 오후반: 2014. 9. 6(토) 14:10(특급반)
모집기간	2014. 8. 1(금)~9. 6(토)	2014. 8. 1(금)~9. 6(토)
수업기간	2014. 9. 5(금)~2015. 2. 14(토) (6개월 24주 96시간)	2014. 9. 1(월)~2015. 2. 14(토) (6개월 24주 96시간)
수업시간	-오전반 09:10~13:00 -오후반 14:10~18:00	-오전반 09:10~13:00 · 오후반 14:10~18:00 -어간반 19:00~21:00
수강료	₩360,000 (예금주:광주여대) ·광주은행: 148-107-307803	₩360,000 (예금주:광주교대) ·우체국: 5033557-01-005018
수료후 특전	-1.2년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흥회 현문지도사 자격 취득 기회 부여 -각 현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급학교 병과 후 교육강사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5급~사범대학) 기회 부여	-1.2년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흥회 현문지도사 자격 취득 기회 부여 -각 현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급학교 병과 후 교육강사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5급~사범대학) 기회 부여
문의처 및 접수처	-문 의: 062950-3582~4 -지도교수: 010-3614-4160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always.kwu.ac.kr	-문 의: 062920-4243 -지도교수: 010-3614-4160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www.gnue.ac.kr

★4성급★ 호텔건물매매

- 현재 노인요양시설 허가 취득
- 엘리베이터 설치 및 리모델링공사 완료
- 목포역에서 걸어서 10분 거리 위치
- 4성급호텔, 노인병원 등 즉시 사업가능 (커피숍은 휴업중)
- 주차장 및 부속상가 건물 3동

한국간병원 김경자 보다 20% 감액 매매 예정

매매가격 상당 후 결정 · 현장 답사 요청

목포시 대의동 2가 1-9번지외 3필지(지상 9층 지하 1층)

토지면적 3,478㎡(1,054평)/건축면적 7,091㎡(2,149평)

연락처 010-9823-7781, 010-9696-8701